

# 한국 방위의 한국군化, 自力방위에 진일보

## - 제24차 韓·美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

**제24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가 10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崔世昌 국방부장관과 덕 체니 미국방장관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국방부장관은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핵개발 저지대책, 주한미군 감축 전망, 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사 장래문제, '93 TS연습, 21세기 한·미 안보협력 방향, 25차 SCM전망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韓國측이 거둔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이양시기를 빠르면 내년 하반기중, 늦어도 94년말 이전까지로 합의한 점이다.

평시작통권의 한국군 이양은 駐韓美軍의 역

할변경을 위한 단계적 조치중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 관건으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과 위상을 되찾게된 것과 이에따른 책임 또한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평시작통권 환수 합의가 국민의 자주적 정서를 수용함으로써 민족자존의식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한 모든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앞으로 對北협상등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임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평시작통권이 이양될 경우 한국군은 대규모 전투부대 이동은 물론 팀스피리트와 같은 연합훈련때 작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등 40여년만에 비로소 전술적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 防産육성기금 2천억원으로 3배 늘려 ...

### - 〈國防白書〉 1992~1993년판 발간 -

**1992년** ~1993년판 〈國防白書〉가 발간되었다.

국방부가 다섯번째 발간하는 이번 백서에서는 탈냉전 이후 급변하는 주변 안보환경과 위협의 실상, 자주국방태세 발전, 적정국방예산 확보의 불가피성등이 중점기술되어 있다.

또한 백서에는 전력증강사업을 위해 방위산업육성기금을 현재의 6백억원에서 2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방산물자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이 밝혀져 있으며, 對국민 신뢰구축을 위해 군 작전용 해안철조망 제거, 민통선 출입완화, 군용시설 교외이전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언급되어 있다.

이어 백서는 북한의 스킨미사일에 대비한

방공전력구축을 위해 요격미사일도입 및 개발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변 4강의 군사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낙관을 불허케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백서의 주요내용 中 국방태세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력발전방향은 90년대 중반까지는 기존전력의 내실화와 전술조기경보체제의 자주화에 중점을 두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첨단무기체계 위주의 억제전력 확보와 전략 조기경보체제의 자주화에 역점을 두어 자주적 방위전력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지상전력은 입체고속기동전력의 핵심요소인 기계화·기갑전력, 포병전력, 공중기동전력에



## 空軍, 미스트랄 및 개량 호크 유도탄 시범 발사

**공군** 은 10월 8일 하오 서부 전선○○ 사격장에서 李養鎬 공군 참모총장과 金振永 육군 참모총장 등 軍 주요 인사와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대공 개량 호크 PIP-2 유도탄 및 미스트랄 유도탄의 성능 확인 및 시범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번 유도탄 사격은 기존의 호크 유도탄을 개량, 보강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PIP-2 장비에 대한 운영 능력과 야전 적응력을 실사격을 통하여 평가하는 한편, 비행장, 레이더 기지의 저고도 단거리 대공 방어와 기동부대 근접 방공 지원 임무 등 국지 대공 방어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도입된 휴대용 유도탄인 미스트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발사 신호와 함께 붉은 섬광을 내뿜으며 발사된 호크 PIP-2와 미스트랄 유도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적기를 명중시킴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날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프랑스제 마트라(MATRA)사의 미스트랄 유도탄은 현재 프랑스외 11개국에 실전 배치, 운영되고 있는 중저고도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로서 적외선 추적방식으로 자체 유도되는 최신에 장비이다.

또한 미스트랄 유도탄은 야간조준기와 피아식별 기능 등 정밀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어, 중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을 전천후로 방어할수 있는 첨단 유도무기이다.

중점을 두고 있다.

해군은 입체적 대잠전략 확보에 중점을 두고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능이 우수한 한국형 전투함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함으로써 함정의 淸北 수적 열세를 질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대잠항공기

를 도입해 잠수함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추진하고 있다.

항공전력은 전천후 주·야간 공세제공 및 전자전 수행전투기 확보와 아울러 淸北 숫적열세를 보완키 위해 저·고성능 항공기의 복합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